

IMF체제와 자가배합사료 활성화

사례 소개

주문배합사료 생산하는 천안지부

주 문배합사료란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사료회사에 원하는 사료를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하면 사료회사는 생산자가 원하는 형태의 배합사료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이러한 주문배합사료 생산의 큰 장점은 원하는 품질의 사료를 생산자가 원하는 대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그 지역 단위로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업비·관리비 등이 절약됨으로 일반배합사료보다 값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.

이 방식의 처음 취지는 정부에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가배합사료용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축협 배합사료 공장을 통해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가 이미 확보한 국내 부존자원에 직접 구매가 어려운 수입곡물을 구입하여 농가에서 직접 자가배합하여 돼지에게 급여하는 방식으로 본회 천안지부나 홍성지부 등에서 행해지는 형태는 농가가 직접 배

합하는 과정을 없애고 축협 배합사료 공장에 주문하는 형식으로 임가공을 의뢰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.

지난 97년 9월부터 1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주문배합사료 생산하는 천안지부

천안지부(지부장 : 한만수)는 지난 97년 9월부터 10명의 지부회원이 참여하여 주문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으며, 올해 6월 현재 지부 회원중 15명이 늘어난 25명이 이에 동참하여 주문배합사료를 이용하고 있다. 그 사용량도 시작 당시에는 월 850톤에서 현재에는 1,500톤 정도로 그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.

최초 시작 당시 이 지역 천안축협의 사료공장 가동률은 70% 수준이었으나 천안지부와 주문배합사료 임가공 생산을 해줄 것을 계약한 이후에는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고 한다.

이 방식은 천안지부와 천안축협 관계자가 만나 처음 주문배합사료를





▲천안지부 한만수 지부장, 한 지부장은 주문배합사료 이용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처음 계약당시 그 지역 축협과 임가공비, 주문배합 사료이용 여신기간 등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.

임가공해 줄 것을 계약하고 천안지부에서 (주)한국양돈진흥사업회를 통해 제공받은 미국 무어맨사의 기본 FOMULA와 PREMIX(QR1407, QR1404-무어맨사에서 제공하는 영양성분)를 천안축협에 제공하고, 천안축협은 여기에 맞게끔 임가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. 또한 사료에 첨가되는 여러 가지 약품도 천안지부에서 지정한 약품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.

천안지부에서는 이렇게 계약

을 한 후 그 다음은 지부회원이 자유로이 일반 배합사료 이용하듯 축협과 직거래를 할 수 있으며, 사료의 단계도 짓먹이, 육성, 비육, 포유, 임신돈 등 자돈의 입질사료 이외에는 모든 단계별로 생산하고 있다. 이를 회원농가에서 이용할 경우 단계별로 선택하여 급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장 형편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주문배합사료를 이용하게 하였다.

일반배합사료보다 14~15% 더 저렴

주문배합사료의 가격은 천안지부가 지난 97년 9월 처음 시작 당시 일반 배합사료(푸리나, 우성, 제일제당 등) 회사보다 20% 저렴했다. 그러나 올해들어 IMF체제 이후 환율폭등에 의해 곡물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그 차이는 14~15% 수준으로 줄어들었다.

그러나 사료값을 1%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농가의

입장에서 15%수준은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. 또한 품질면에 있어서도 일반배합사료보다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그 이상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
주문배합사료의 가격 결정은 천안지부와 천안축협간에 그달 그달의 환율변동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데 보통 환율 차이가 5% 수준 이상으로 될 때에 정확한 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상호 조정과 협의를 거쳐 주문배합사료의 가격을 정하게 된다.

주문배합사료 계약시 축협과 임가공비 등의 조율이 관건

주문배합사료의 이용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처음 계약당시 그 지역 축협과 임가공비, 주문배합사료이용 여신기간 등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며, 특히 현재 지역별 축협 사료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지역축협사료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맺어 주문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여겨진다.

실제로 천안지부의 경우 회원들이 주문배합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사료이용 여신기간이 다른 배합사료 업체들에 비해



▲지부사무실에서 한만수 지부장(중간)과 김성배 부지부장(우측), 좌측은 지부 살림꾼 김수진씨

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.

한편 지역 축협사료공장의 경우도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. 또한 이러한 주문배합사료 사업은 다른 배합사료 회사에도 견제기능을 갖는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.

주문배합사료 이용능 가 출하일령 7~10일 정도 단축돼

천안지부의 한 회원은 예전의 다른 회사 배합사료를 급여했을 때보다 110kg 출하일령이 7~10일 정도 단축되었다고 하고, 젓먹이 사료의 경우 바로 이유한 자돈이 상당히 빨리 사료에 적응을 할 정도라며 주문배합사료 품질의 우수성을 강

〈표〉 천안지부의 주문배합사료 가격 변동표(운임비 포함, 외상 벌크)

〈단위 : 원〉

협상단계	단계	젓돈	육성돈	비육돈	임신돈	포유돈	비고
	날짜						
1차	12/15	300	282	268	286	298	
2차	12/23	364	338	315	336	356	
3차	3/1	409	377	353	376	399	
4차	4/6	396	364	342	363	385	
5차	5/6	370	340	320	340	360	

조했다.

특히 천안지부는 사료비중 1kg 당 1원을 수수료로 받아 협회 운영비로 이용(월 150만원 정도 수입)하고 있으며, 협회에 등안시켰던 회원들이 적극 협회행사에 참여하게 되고, 비회원인 경우도 주문배합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자가배합사료 생산·이용을 실시한 후 회원유치가 한결 수월

해졌다고 한다. 또한 여러 가지 협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.

한편 천안지부는 천안을 중심으로 위치한 지역에서 주문배합사료 사용을 개인적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에도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고 한다.

특히 농가가 중심이 되어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 중심의 고품질 사료 생산을 유도할 수 있고, IMF체제하에서 사료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주문배합사료를 이용하는 회원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전력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잇점이라고 할 수 있다.

〈취재 : 이병석〉 **養豚**